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해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필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독립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10월 12~13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이 300개 정도이고,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며, 차관이 1년에 참석하는 회의는 700개가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스스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전략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책임과 권한이 일치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정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감염병 예방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차관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달할 차관이 1명 더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로 나눠 보건의료 산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부처를 나누지 못한다면 차관을 한 명 더 두고 각 분야를 맡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 블루오션은 보건 의료산업에 달려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와 복지분야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산업분야를 더 일목여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신고건수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조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만9669건이었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8302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직업군별 신고건수는 교직원 39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814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09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6건 순이었다. 의료인은 216건이었다.

10월 16일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윤종필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9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함에도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안일하고 관대하며, 대중매체는 이를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매체의 음주장면 노출 실태는 드라마의 경우 편당 1.0회, 케이블이나 종편은 이의 2배”라며 “음주장면의 경우 35.2%는 만취, 원샷, 폭탄주 등 고위험 음주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무분별한 음주장면은 청소년 음주시작 연령을 앞당기거나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대중매체 음주장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우리 사회 전반에 올바른 음주문화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온 살충제 달걀 파동, 생리대 위해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보다 철저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31일 열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게 된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앞두고 연명의료 시범사업 3개월간 실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각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지정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

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단,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노인 진료비, 전체 진료비의 39% 차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5조2692억원으로 전체의 39.1%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5%, 2009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44만5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2.7%였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98만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29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 DB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oo@

2017년 순회보수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순회보수교육(보수교육 8시간 인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간호와 의사소통-소통의 감을 잡다	간호와 리더십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2017년 12월 1일(금)
신청기간	2017년 10월 20일(금) ~ 11월 20일(월)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70명(선착순 마감)	110명(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당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의료인 면허신고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2017년 면허신고 대상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2년 또는 2013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 2014년 면허 취득자
- 2014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신고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2017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20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7년에는 면허신고를 할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KNA 면허신고센터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한국 임종의 질 80개국 중 18위

보건복지부는 ‘제5회 호스피스 의 날’을 맞아 호스피스 운영 현황 및 이용률 등을 발표했다.

먼저 2015년 세계죽음의질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종의 질’은 세계 80개국 중 18위로 나타났다. 영국 1위, 타이완 6위, 미

국 9위, 캐나다 11위, 일본 14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를 실시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17.7%였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입원형 호스

피스가 81개 기관 1321병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요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2개 기관 132병상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25곳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2차), 20곳에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1차)을 실시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푸르덴셜생명이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에서 8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좋은 생명보험사'는 23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푸르덴셜생명은 안정성, 수익성, 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한 종합순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푸르덴셜생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8년 연속 1 위